

무 역 규 범

1.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영수하고,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중개무역은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이다.
- ③ 중계무역은 중계무역업자가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수입하여 수출통관을 거쳐 최종 수입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 ④ 수탁가공무역이란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2.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거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대금을 받는 것은 제한이 없으나, 대금의 지급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은 무역의 형태와 관계없이 한국무역협회장이 한다.
- ③ 수출입공고 상의 품목관리는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수입제한품목으로 구분된다.
- ④ 무역거래자가 물품 수입 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모두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3.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입 제한물품으로서 수출입승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외교관이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보내는 특정물품
- ② 긴급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를 밟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③ 외국환 거래없이 수입하는 물품으로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 ④ 해외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또는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물품

4.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공고상 요건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한국의 (주)KITA가 월양어선에 선용품을 납품하였다.
- ② 한국의 (주)KITA가 일본으로부터 양파종자를 무상 수입하였다.
- ③ 한국의 (주)KITA가 태국에서 생산한 의료기기를 미국으로 중계무역 수출하였다.
- ④ 한국의 (주)KITA가 브라질에 있는 자사 건설장비를 미국으로 외국인도수출하였다.

5. 거래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외무역법규상 수출실적 인정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다른 고려사항은 없음. 단위는 미화(USD))

- 태국에서 위탁가공된 의료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이다.
- 한국에서 태국으로 보내는 원자재 수출금액 : CIF 10,000
(운송료 2,000, 보험료 1,000)
- 한국에서 태국으로 지급하는 가공임: 5,000
- 의료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의 외국환은행 입금액: 30,000

- ① 12,000
- ② 15,000
- ③ 20,000
- ④ 30,000

6.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출
- ②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 ③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 ④ 무역거래자가 한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

7.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물자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매매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경우 중개업무도 가능하다.
-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수출실적 등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의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 ①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중 국내 수입 후 통풍, 건조, 냉동, 냉장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 ②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모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 ④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9.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전까지 원산지 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 ④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10. 수입물품과 관련한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다른 고려사항은 없음)

- A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원산지표시대상이다.
- 수입물품은 3종류의 주요 원재료를 단순 혼합한 물품이다.
- 원재료의 원산지는 A국, B국, C국이다.

- ① Made in A (원재료별 원산지 A, B, C)
- ② Mixed in A (원재료별 원산지 A, B, C)
- ③ Organized in A (원재료별 원산지 A, B, C)
- ④ Imported from A (원재료별 원산지 A, B, C)

11.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수량제한조치는 조치 (A)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며,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 기간은 (B)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변경되는 조치
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의 조치 내용보다
(C) 되어야 한다.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과 관세법상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D)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① A (시행일 이후) - B (4년) - C (완화) - D (8년)
- ② A (시행일 이전) - B (180일) - C (강화) - D (4년)
- ③ A (시행일 이후) - B (180일) - C (완화) - D (4년)
- ④ A (시행일 이전) - B (4년) - C (강화) - D (8년)

12.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을 포함한다)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최종 단계에서 발급할 수 있다.
- ④ 외국환은행의 장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 첨부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야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3.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우리나라 무역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취급한다.
- ② 수출보험의 신용위험은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 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을 말한다.
- ③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출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④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기업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14. 관세법령에 의거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수출신고하여 수리가 되었다. 해당 물품은 (A)물품이다.
- 부산항으로 입항한 선박에 있는 물품을 인천공항으로 운송하여 항공기를 통해 반출하는 것을 (B)이라고 한다.
- 인천항에 도착한 베트남산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반출되는 경우 (C)신고를 해야한다.

- ① A : 내국 B : 다중환적 C : 반송
- ② A : 외국 B : 복합환적 C : 반송
- ③ A : 내국 B : 복합환적 C : 수출
- ④ A : 외국 B : 다중환적 C : 수출

15. 다음 조건에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과세물건의 수량과 관세율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주)KITA는 독일에서 A제품 10,000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해당물품은 2021년 12월 26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 도착한 물품 중 10개는 운송 중에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세법이 2022년 1월 1일 개정되어 A제품의 관세율이 변경되었다.
(2021년 : 8%, 2022년 : 6%)
- (주)KITA상사는 2022년 1월 5일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 ① 과세물건 : 10,000개 관세율 : 8%
- ② 과세물건 : 9,990개 관세율 : 8%
- ③ 과세물건 : 9,990개 관세율 : 6%
- ④ 과세물건 : 10,000개 관세율 : 6%

16. 관세 및 내국세의 산출 및 부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관세 부과 시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며 해당 주에는 동일한 과세환율이 적용된다.
- ②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납부해야 할 관세 및 기타 내국세액(부과 대상에 한한다)이 포함된다.
- ③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제세 모두)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내국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이 관세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내국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7.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 A. 세관장에 납세신고를 한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B.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족세액은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C.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D.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1차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3%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1.2%의 증가산금을 부과한다.

- ① A, C, D
- ② A, B
- ③ B, C, D
- ④ A, B, C

18. 신용장 거래방식으로 수입한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 전에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 관세법상 관세의 우선 납세의무자는?

- ① 수입화주
- ② 신용장 개설은행
- ③ 보세창고 운영인
- ④ 없음.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9. 다음은 관세법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① 2, 5
- ② 3, 5
- ③ 3, 7
- ④ 5, 10

20.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1방법)의 적용 대상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기재된 것은?

- A. ㈜KITA는 이탈리아 A사가 새로 개발한 커피머신의 견본을 무상 수입하였다.
- B. ㈜KITA는 미국의 B사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수입하였다.
- C. ㈜KITA는 중국 C사로부터 2회에 걸쳐 분할 선적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 D. ㈜KITA는 미국 소재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다.

- ① A, C
- ② A, B
- ③ C, D
- ④ B, D

21. (주)KITA가 인도 A사로부터 2022년 6월 3일 초산에틸을 수입하였다. 이때 (주)KITA가 납부해야 할 최적의 관세율로 올바른 것은?

- 기본관세(A) : 8%
- 덤핑방지관세(I) : 8.56 ~ 19.84% [부가대상물품] 초산에틸 [공급국] 인도
[적용기간] 2018-11-19 ~ 2022-07-08
- WTO협정관세(C) : 5.5%
- 한-인도 CEPA(FIN1) : 0%
- * 인도 A사 덤핑방지관세율 : 10.63%
- * 인도 A사는 (주)KITA에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 ① 16.13% ② 5.5%
- ③ 8% ④ 10.63%

22. (주)KITA는 독일 S사로부터 유모차 100대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개당 가격은 CIF USD1,000 이다. 다음 조건에서 납부해야 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다른 고려 사항은 없음)

- 독일에서 한국까지 운송료 : USD 500
 - 수입 통관 시 적용되는 과세환율 : USD 1 = KRW 1,000원
 - HSK CODE : 8715.00-0000 (HSK 2022)
 - 기본세율(A) : 5%
 - WTO 협정세율(C) : 13%
 - 한-EU FTA 협정세율(FEU1) : 0%
 - 부가가치세율 : 10%
- * (주)KITA는 S사에 상표권의 대가로 KRW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 (주)KITA는 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았다.
- * S사는 인증수출자로 한-EU FTA 원산지발급방식 따라 자율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주)KITA에게 제공하였다.

- | | |
|-------------------|---------------------|
| ① 관세 : 0원 | 부가가치세 : 11,000,000원 |
| ② 관세 : 5,500,000원 | 부가가치세 : 11,550,000원 |
| ③ 관세 : 1,300,000원 | 부가가치세 : 11,050,000원 |
| ④ 관세 : 0원 | 부가가치세 : 10,050,000원 |

23. 다음 HSK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9202.10-1000: 바이올린

- ① “9202”는 소호에 해당한다.
- ② “92”는 호에 해당하며 97개 호가 있다.
- ③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9202.10”만 기재한다.
- ④ WTO 회원국은 바이올린의 HS를 “9202.10-1000”으로 동일하게 사용한다.

24. (주)KITA는 가죽용 캘린더기(HSK : 8420.10-3000)를 일본 A사로부터 수입하기로 하였다. 아래 캘린더기의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른 고려사항은 없음)

■ HSK : 8420.10-3000 (가죽용)		
기본관세(A)	WTO협정관세(C)	RCEP 일본(FRCJP)
8%	13%	0%
■ 용도세율 : [세종] FRCJP [용도·규격] 가죽용 [사후관리] Y		

- ① (주)KITA는 캘린더기를 가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A사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용도세율 0%로 수입 통관을 완료하였다.
- ② (주)KITA는 수입신고 시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하였다. (주)KITA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③ (주)KITA는 수입신고 시에 용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용도세율 적용을 받았다.
- ④ (주)KITA가 가죽용으로 용도세율 적용을 받아 수입 통관한 물품을 제지용으로 사용했다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기간을 안분하여 차액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25. (주)KITA는 일본에서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HSK : 8439.30-1000)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수입 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관세율로 올바른 것은? (다른 고려사항은 없음)

기본관세(A)	WTO협정관세(C)	RCEP 일본(FRCJP1)
8%	8%	7.6%

■ 해당 물품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으로 감면율은 70%이다.
 (2021.03.16. ~ 2022.12.31.)
 ■ 수입 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세율의 적용 신청을 하였다.

- ① 7.6%
 ② 5.6%
 ③ 5.32%
 ④ 2.28%

26. 다음 기사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한국의 H제철이 미국에 수출한 후판(두께 6mm 이상의 철판)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헤럴드경제. 2022.03.30.)
--

- ① 덤핑방지관세
 ② 보복관세
 ③ 긴급관세
 ④ 상계관세

27.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세자가 통지된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고 한다.
- ② 관세법 등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 ③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은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 ④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8.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음 중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 A.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B.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C.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 D. 검역물품
- E. 압수물품

- ① A
- ② B
- ③ B, C
- ④ D, E

29.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②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③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④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0. 관세법령상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물품인 경우로 수입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물품을 모두 기재한 것은?

- A.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 B. 우편물(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다.)
- C.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 D.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 ① A, B, C
- ② B, C, D
- ③ A, C, D
- ④ A, B, C, D

31. 다음은 관세법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등)

-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 할 수 있다.

- ① 30, 1, 취소
- ② 30, 1, 취하
- ③ 10, 2, 취하
- ④ 10, 1, 취소

32. 다음은 원예산업신문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기사내용에 해당하는 관세법상 보호대상인 지식재산권으로 옳바른 것은?

지난 18일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블루베리를 무단으로 자가 증식한 농가가 묘목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묘목 값보다 비싼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증식, 판매 등 실시권이 있는 종묘 업체로부터 종자나 과수·화훼 묘목을 구입해야 하며, 구입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① 품종보호권
- ② 지리적표시권
- ③ 실용신안권
- ④ 상표권

33. 다음 중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 A. (주)KITA는 직물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관세율 착오사실(8%→3%)이 발견되어 당초 세액이 감소됨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했다.
- B. (주)KITA는 직물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직물로 의류를 생산하여 유상으로 수출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환급을 신청했다.
- C. (주)KITA는 프랑스로부터 직물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유상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했다.
- D. (주)KITA는 관세를 납부하고 직물을 수입하였으나 확인결과 당초 계약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했다.

- ① A, B
- ② B, C
- ③ C, D
- ④ A, D

34. (주)KITA는 화장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다. 2022년 5월 20일 오전 인천세관에 수출신고 하였으나, 적재지 검사에 해당되어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2022년 5월 21일에 수출신고수리를 받았다. 해당 화장품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2022년 5월 27일에 인천항에서 선적하였다. 이와 관련,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① (주)KITA는 5월 20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화장품을 구성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② (주)KITA는 5월 21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화장품을 구성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③ (주)KITA는 5월 27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화장품을 구성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④ (주)KITA는 5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화장품을 구성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35. 관세환급특례법령상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소요량산정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 ① 단위실량 산정방법
- ②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 ③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 ④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36. 관세환급특례법령상의 환급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환급 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37. 다음 중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상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는 원산지 국가에 해당한다.
- ②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초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는 원산지 국가에 해당한다.
- ③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는 원산지 국가에 해당한다.
- ④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다음 중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관세법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원산지”란 물품의 포장, 조립, 단순 환적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 ④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9.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상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한국의 (주)KITA는 태국으로부터 태국산 망고스틴(0804.50-3000)을 수입하였다. (주)KITA는 수입 시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했지만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류를 전달받아 FTA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하였다.

망고스틴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기본관세 : 30%
- WTO협정관세 : 45%
- 한-아세안 FTA 관세 : 24%
- 한-아세안 RCEP 관세 : 27%

- ① (주)KITA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FTA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FTA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주)KITA는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WTO협정관세 45%를 적용 받는다.
- ③ (주)KITA가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주)KIT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40. 다음 제시된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한국의 (주)KITA는 중국으로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9403.70-0000)를 수입한다.

(주)KITA는 수입신고 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다.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다.

- ① 원산지증명서는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중국과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 ③ 협약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포괄원산지증명서(1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
- ④ 한-중 FTA협약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무 역 결 제

41. 송금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CWO는 매수인이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송금해야 하므로 매수인에게 불리하다.
- ② O/A방식은 매도인이 수출품 선적을 완료하고 매수인에게 선적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 ③ 송금결제방식에서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발송한다.
- ④ COD방식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사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42. 송금결제방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기재한 것은?

- A. 사전송금방식의 경우 매도인은 대금회수불능의 위험(credit risk)이 있고, 매수인은 상품입수 불능의 위험(mercantile risk)이 있다.
 - B. 송금결제방식에서 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한다.
 - C. T/T in Advance는 Seller's Market의 상황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 D. 송금결제방식에서 수출자는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 E.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CAD 방식은 D/P, Sight L/C와 마찬가지로 동시결제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F. O/A 방식은 매도인의 신용위험이 낮다.

- ① A, E
- ② B, D
- ③ C, E
- ④ E, F

43. O/A 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본지사간이나 신용도가 높은 고정거래선 등과 같이 대금회수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수출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②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d Payment Bond)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 ③ 수출자와 수입자가 O/A방식 결제를 합의한다면 수출자는 신용장방식 거래에 비하여 수입자에게 더 높은 물품대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 ④ O/A 방식에서 수입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한다.

44. 송금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CAD 방식에서 매수인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PSI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송금결제방식은 당사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이며 거래관계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 ③ 송금결제방식을 규제하는 별도의 국제규칙은 없으며 추심 및 신용장방식에 비해 무역거래 흐름이 단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 ④ O/A nego는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에 제시하여 할인받으며 은행이 원본 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45. 송금결제방식과 추심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D/P 방식으로 거래 시 매수인은 인수행위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D/P 방식의 거래는 대금결제는 보장되지 않더라도 물품 회수는 보장되므로 D/A 방식보다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 ③ O/A는 선적 후 수출업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지만 D/A는 선적 후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한다.
- ④ 수입자의 지급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 은행에 신용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O/A가 D/A보다는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46. 추심결제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 A. 추심거래에서 추심대금의 결제가 있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게 있다.
- B. 추심지시서에 D/P인지 D/A인지 명시가 없는 경우 은행은 D/P로 간주한다.
- C. D/A방식에서는 수입자가 서류를 인도받는 시점부터 수출자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 D. 추심은행은 추심거래의 중개자로서 수입상의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 의무가 있다.
- E. collecting bank는 drawer가 제시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remitting bank 앞으로 송부하면서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 ① A, B, D
- ② A, D, E
- ③ B, C, E
- ④ C, D, E

47. 추심결제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D/P 방식은 대금지급시기 측면에서 신용장 방식의 sight와 같은 조건이다.
- ②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심사할 의무가 없다.
- ③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자에 대한 지급 책임자는 수입자이다.
- ④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용장 결제 방식에 비해 선적서류 준비가 용이하다.

48. 송금, 추심, 신용장 결제방식을 비교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CAD는 대금 결제시기 측면에서 D/P와 유사하지만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P와 차이가 있다.
- ② D/A는 외상거래라는 측면에서는 O/A와 유사하지만 수출자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O/A와 차이가 있다.
- ③ 신용장거래는 일반적으로 송금 및 추심방식보다 은행 수수료의 종류가 많고 금액도 크다.
- ④ 수출자는 추심거래에서 고객(principal)이자 추심의뢰인이며,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익자(beneficiary)가 된다.

49. 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의 담보권 확보 차원에서 수익자에게 요청하는 운송서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ea Waybill
- ② Surrendered Bill of Lading
- ③ Air Waybill
- ④ Ocean Bill of Lading

50. 다음 문구에 해당하는 신용장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 PLEASE FORWARD US ALL DRAFTS AND DOCUMENTS IN ONE LOT BY COURIER SERVICE. DOCS WILL BE SENT TO THE ISSUING BANK AFTER SUBSTITUTION. PAYMENT WILL BE EFFECTED ON RECEIPT OF FUNDS FROM THE ISSUING BANK.

- ① transferred L/C
- ② transferable L/C
- ③ back to back L/C
- ④ escrow L/C

51. 보증신용장과 은행보증서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 ① 보증신용장은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D/C이다.
- ② 보증신용장은 UCP 60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③ 보증신용장에 관한 별도의 국제규칙인 'ISP98'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은행보증서는 'URDG 758'이 적용되고 있다.
- ④ Retention guarantee는 공사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보장하거나 기계·설비 등을 수출한 후 일정기간 내에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 시 그 보수의 수리 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보증서이다.

52. 다음 서식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TO : USCM BANK NEW YORK N.Y U.S.A.
FROM : KITA BANK SEOUL, KOREA
ATTN : L/C DEPT
PLS ADVISE OUR IRREVOCABLE STANDBY L/C NO.M2020 FOR USD100,000
TO THE BENEFICIARY ZET CORP N.Y, AS FOLLOWS.

WE HEREBY ISSUE OUR IRREVOCABLE STANDBY L/C NO.M2020 FOR AN
AGGREGATE AMOUNT OF UP TO USD100,000(SAY UNITED STATES DOLLARS
ONE HUNDRED THOUSAND ONLY) IN FAVOR OF ZET CORP N.Y FOR
ACCOUNT OF NEMO CORP, SEOUL KOREA AS SECURITY FOR REPAYMENT
OF BENEFICIARY'S ADVANCE PAYMENT OF USD100,000 REPRESENTING
THE AGREEMENT NO.K20200110 DATED JAN.10,2020 BETWEEN ZET
CORP N.Y AND NEMO CORPORATION KOREA.

PAYMENT UNDER THIS STANDBY L/C IS AVAILABLE AGAINST BENEFICIARY'S
DRAFT DRAWN ON US ACCOMPANIED BY BENEFICIARY'S SIGNED
STATEMENT CERTIFYING THAT THE ACCOUNTEE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CONTRACT AGREEMENT.

- ① 선수금환급 보증신용장이다.
- ② 이 신용장의 수익자는 ZET CORP N.Y이다.
- ③ ZET와 NEMO의 합의서를 기반으로 발행된 서식이다.
- ④ 수익자는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53.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상환은행은 일람불 상환신용장에서 개설은행에게 결제환가료를 청구하였다.
- ②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의 하자에 대해 용인하였지만, 매입 은행에 하자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 ③ 개설의뢰인은 인수시점에 acceptance commission & discount charge를 선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신용장대금만 개설은행에 결제하였다.
- ④ 개설은행은 환어음이 요구된 일람불 매입신용장에 대해 개설의뢰인에게 인수수수료를 청구하였다.

54. 화환신용장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확인이란 취소가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외 제3은행이 추가적인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확인은 지급 또는 인수를 약속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서류를 상환청구 조건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 ③ 확인은행의 책임과 의무가 개설은행과 연계되는 행위이다.
- ④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면 확인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55. 다음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와 관련하여 작성된 내용이 잘못된 것은?

46A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OF INSURANCE POLICY ISSUED TO ORDER OF ISSUING BANK FOR 110PCT OF THE INVOICE VALUE. INSURANCE TO INCLUDE INSTITUTE CARGO CLAUSES (A), INSTITUTE WAR CLAUSES (CARGO) AND INSTITUTE STRIKE CLAUSES (CARGO) WITH CLAIMS PAYABLE IN SOUTH KOREA

- ① 보험료에 대해 그 금액은 표시하지 않고, “insurance premium not paid” 라고만 기재하였다.
- ② 보험증권 하단에 “Terms and conditions subject to Institute extended radioactive contamination exclusion clause” 라고 추가하였다.
- ③ 피보험자는 개설은행으로 기재하고, 수출상이 배서하였다.
- ④ 운송서류의 선적일자에 발행되었다.

56. 다음 화환신용장 문구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 중 개설은행이 수리가능한 문구로 올바른 것은?

46A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OF ORIGINAL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 ① Packaging soiled by contents
- ② Old packaging materials used
- ③ Packaging badly dented
- ④ Insufficient packaging

57. 포페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포페이팅 활용 시 개설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② D/P, D/A의 추심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다.
- ③ 1년 이하의 단기거래 중 확정된 매출채권에만 국한한다.
- ④ 매입 할인율은 국가 및 은행의 신용도, 결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8. 국제팩터링을 활용하는 수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계약조건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물품을 수령한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 ③ 수입팩터에게 AVAL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수입국 내에 수입팩터가 없어도 가능하다.

59. 화환신용장 조건변경에 관한 UCP600의 규정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 수락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②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규정은 유효하다.
- ③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해 수락함이 없이 조건변경 내용대로 서류를 제시했다면 이는 조건변경에 대한 수락으로 본다.
- ④ 신용장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용장 조건변경이 가능하다.

60. 화환신용장 거래 시 서류심사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에 작성될 수 있으나 제시 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②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 선적인 또는 송하인은 수익자(beneficiary) 이어야만 한다.
- ③ 제시되었으나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서류는 무시될 것이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
- ④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5은행영업일이 주어진다.

61. UCP 600에서 규정한 화환신용장의 서류 제시에 대해 잘못된 것은?

- ① 적어도 신용장에서 명기된 각각의 서류의 원본 한 통은 제시되어야 한다.
- ②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
- ③ 신용장이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서류 자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본 2통을 제시해야 한다.
- ④ 상업송장은 서명될 필요가 없다.

62.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이 다음과 같을 때 잘못된 것은?

45A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 ① B/L상에 “shipper’s load & count” 또는 “reconditional materials” 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하자가 아니다.
- ② “clean on board”는 무고장 본선 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B/L상에 “clean on board” 또는 “clean”이라는 단어가 명기되어야 한다.
- ③ 선하증권 consignee란에 “to order of shipper”라고 기재하고 수출상과 매입은행이 연속해서 배서해야 한다.
- ④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및 권리가 체화된 권리 증권의 기능을 가진다.

63. UCP 600에서 규정한 보험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보험서류는 부보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 ② 신용장에 보험서류 원본 1부를 제시하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 원본 2부가 발행되었다면, 원본 1부만 제시해도 무방하다.
- ③ 보험서류는 어떠한 제외문구(exclusion clause)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신용장에 부보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부보금액은 최소한 CIF 또는 CIP가액의 110%가 되어야 한다.

64. UCP 600에서 규정한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 ① 신용장이 원본전통(full set)을 규정하면 전통을 제시해야 한다.
- ② 발행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환적이 될 것 또는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항공운송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 ④ 신용장에 기재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5.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 ① 신용장 41D. 항목에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라고 명기되었다면 환어음은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환어음에 기재된 숫자금액이 문자금액과 상이하다면 숫자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③ 환어음은 수익자에 의해 발행, 서명되고 발행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 ④ 환어음의 만기에 관하여 일람출급이나 일람 후 정기출급 이외의 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환어음 자체 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일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66. 화환신용장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양도은행에서 발생한 양도 관련 수수료는 제2수익자의 부담이다.
- ②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 ③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에 'divisible'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④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67. ISBP745에서 규정한 일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 ①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또는 훈증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선적일보다 나중 일자로 표시될 수 있다.
- ②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만기일이나 제시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일은 제외한다.
- ③ 발행일을 표시하고 그보다 나중 일자에 서명일을 표시하는 서류는 발행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④ 기간을 산정할 때 “within”은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68. 다음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Publication No. 600)

-----SWIFT-----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 Supply of Equipment for Integrated Steel Plant

46A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 Performance Letter of Credit for USD 900,000 having validity up to 18 months from the date of shipment

- ① 수익자는 선적 후 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② 개설의뢰인은 수익자의 계약불이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 ③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위험관리 방안 마련 후 거래에 임했다.
- ④ 본 신용장은 계약이행 보증신용장이다.

69. 우리나라의 은행 간 외환시장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은행간 협의에 따라 평일 오전 9시에 거래를 시작하여 오후 3시반에 마감한다.
- ② 우리나라의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는 원화와 미국 달러화, 원화와 중국 위안화 간의 직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다.
- ③ 외환시장 참가자는 자국 외환시장 영업시간 이후에도 다른 국가, 지역의 외환시장을 통해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
- ④ 투기 목적의 외환거래보다는 환위험 헤지 목적의 외환거래 비중이 크다.

70. (주)한국무역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엔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엔화로 환전해서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문의했다. 은행들이 제시하는 USD/YEN 환율이 아래와 같다면, (주)한국무역은 어느 은행에서 어떤 환율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환율표시에서 앞의 통화가 기준통화이다.)

USD/YEN		
은행명	매입률(Bid)	매도율(Offer)
A은행	130.10	130.50
B은행	130.30	130.70

- ① A은행과 130.10으로 거래
- ② A은행과 130.50으로 거래
- ③ B은행과 130.30으로 거래
- ④ B은행과 130.70으로 거래

71.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달러/엔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환율표시에서 앞의 통화가 기준통화이다.)

- ① 엔/원 재정환율은 상승한다.
- ② 일본 수출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 ③ 수출 대금을 엔화로 영수하는 국내 기업들은 환차익이 발생한다.
- ④ 엔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원화 환산 차입금이 증가한다.

72. 외환시장의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USD/KRW의 3개월물 선물환율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단, 1년은 360일, 3개월은 90일로 가정하고 환율표시에서 앞의 것이 기준통화이다.)

USD/KRW	
현물환율	1,200.00
한국 원화 금리	3.5% (연율)
미국 달러화 금리	1.5% (연율)

- ① 1,204.00원
- ② 1,206.00원
- ③ 1,208.00원
- ④ 1,210.00원

73. (주)한국무역은 미국으로부터 농기계를 수입하고 3개월 후 달러화를 지급할 예정인데,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은행에 선물환율을 문의하였다. 은행이 다음과 같은 Two-way 방식으로 USD/KRW 환율을 고시했다면 (주)한국무역은 어떤 환율로 거래할 수 있는가?(환율표시에서 앞의 통화가 기준통화이다)

구분	Bid	Offer
Spot Rate	1,250.00	1,260.00
3개월 Swap Rate	10	15

- ① 1,250.10
- ② 1,260.00
- ③ 1,260.15
- ④ 1,275.00

74. 도쿄의 A은행은 USD/KRW 역외선물환(NDF) 거래로 100만 달러를 1,212원에 뉴욕의 B은행에 매도하였다. 만기 시 정산환율이 1,200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A은행과 B은행의 손익에 따른 현금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 ① A은행이 B은행에게 1만 달러 지급
- ② B은행이 A은행에게 1만 달러 지급
- ③ A은행이 B은행에게 1,200만원 지급
- ④ B은행이 A은행에게 1,200만원 지급

75. 다음 중 선물환 거래와 통화선물 거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선물환 거래는 당사자 간 일대일 거래인 반면, 통화선물 거래는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이다.
- ② 선물환 거래는 장외(Over-the-Counter)거래인 반면, 통화선물 거래는 공인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장내거래이다.
- ③ 통화선물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이 상존하지만 선물환 거래에서는 신용위험이 없다.
- ④ 선물환 거래의 계약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통화선물 거래는 계약단위, 만기일 등 계약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76. 만기에 USD/KRW 현물환율이 1,250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프리미엄 비용을 포함하여 가장 손실이 큰 옵션거래는 어떤 것인가?

- ① 프리미엄이 1달러 당 10원이며, 행사환율 1,270원인 콜옵션 매입
- ② 프리미엄이 1달러 당 5원이며, 행사환율 1,230원인 콜옵션 매도
- ③ 프리미엄이 1달러 당 10원이며, 행사환율 1,270원인 풋옵션 매입
- ④ 프리미엄이 1달러 당 5원이며, 행사환율 1,230원인 풋옵션 매도

77. 다음은 (주)한국무역의 외환 포지션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의 현재 종합(overall) 포지션은 얼마인가?

- A. 달러 현금(US\$) : 400,000
- B. 달러 예금(US\$) : 200,000
- C. 달러 차입금(US\$) : 300,000
- D. 달러 외상 매출금(US\$) : 200,000
- E. 달러 외상 매입금(US\$) : 100,000
- F. 달러 선물환 매도(US\$) : 200,000

- ① 200,000달러 short 포지션
- ② 200,000달러 long 포지션
- ③ 400,000달러 short 포지션
- ④ 400,000달러 long 포지션

78. 달러/원 환율이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자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주)한국무역은 이제까지 sight 방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던 것을 180일 usance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환율표시에서 앞의 통화가 기준통화이다)

- ① 매칭(matching)
- ② 네팅(netting)
- ③ 리딩(leading)
- ④ 래깅(lagging)

79. (주)한국무역은 앞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입하면서 콜옵션의 행사가와 풋옵션의 행사가를 같게 하였다. 이러한 옵션 매입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스트래들(Straddle)
- ② 스트랭글(Strangle)
- ③ 버터플라이(Butterfly)
- ④ 범위선물환(Range Forward)

80. USD/KRW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율표시에서 앞의 통화가 기준통화이다)

- ① 미국 FOMC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상
- ②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
- ③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매수 확대
- ④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